

## 8-8-2010 주간 메세지

성서: 시편 122:1-9

본문: 요한계시록 17:1-18

제목: **큰 바빌론의 신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知彼知己 百戰百勝)이라는 말이 있다.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다. 진리의 지식 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적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그들에게 권면했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냐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 이는 그가 아기의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와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히 5:13,14; 6:1,2)

본문에서 주시는 오늘의 메세지는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말씀인 것이다. 이 말씀을 깨달아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바빌론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사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만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발하신 음성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에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제왕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에 따라 두 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두 배로 채워 주라.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고 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그녀의 제왕들이 하루 만에 타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라.**” (계 18:4-8)

본문에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녀는 바깥 광야에 있고, 짐승 위에 앉아 있으며, 그 짐승은 열 뿔을 가지고 있다. 본문 17 장 5 절은 그녀의 이마에 글씨가 있다고 말한다.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참으로 신비롭게 들린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인 것이다.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누구인가? 사사롭게 해석해서도 안되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성경말씀 자체가 스스로 해석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다. 본문 17 장 18 절에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주신다.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그렇다! 이 여자는 도성(도시)이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도성이다. 땅을 다스려왔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잠깐 동안 다스리게 될 도성이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는가?

본문 4 절에서 그녀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별첨 사진 참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녀는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있다 (별첨 사진 참조). 또한 일곱 산 위에 세워졌고 (7 절, 별첨 사진 참조), 땅의 왕들을 다스리며, 상징물이 금잔인 도시는 어디인가? 그 도시의 색깔과 상징물 등을 통해서 그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5 절에서 그녀는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이다. 만일 그녀가 한 도시인데 자신이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이 도시의 이름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알 필요조차도 없다. 문제는 자신이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 분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도시는 신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서는 그 도시가 “창녀”라고 말씀하셨다(1 절). 다시 말해서 그녀는 돈을 위해서 몸을 파는 매춘부라는 말이다. 그 도시는 세상의 호감을 사기 위하여 세상과 잘 어울려 지낸다. 그 도시는 땅의 왕들을 잘 경영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지 가리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면 그들 역시 공산주의자가 된다. 파시스트와 나찌가 지배하던 때에는 그들 역시 한 패가 되어서 그들을 축복하며 전쟁터에 내보냈고 그들이 한 나라를 정복하고 개선했을 때는 사제들과 수녀들이 그들 군대와 함께 개선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그녀는 그들을 도와준 대가로 엄청난 돈을 받았다. 1929 년, 제 2 차 세계대전 직전에 교황 피오 6 세는 파시스트 독재자인 무솔리니를 권좌에 올려주었고 그 대가로 두 사람은 “Lateran Treaty”를 맺었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탈리아의 종교가 될 것을 합의했다. 또한 무솔리니는 현금 7 억 5 천만 리라와 십 리라에 해당하는 국채를 바티칸에 지불했다. 바티칸은 이 돈으로 나찌당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별첨 사진 참조)

일곱 산 위에 세워진 그 도시는 (별첨 사진 참조)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로 가득 차 있다. 일곱 산 위에 세워지고, 그 색깔은 진홍색과 자주색이며, 땅의 왕들을 통치하고, 상징물은 금잔이며,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죄를 지은 그 도시를 아는가? 성경 속의 그 여자는 의심할 여지없이 “로마”이다.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라고 말씀하셨다. 누가 예수님의 열구리를 창으로 찢었는가?(요 19:34) 누가 그에게 못을 박았는가?(마 27:35) 누가 그에게 채찍질을 가했는가?(마 27:26) 누가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었는가?(행 25:12) 누가 야고보의 목을 잘랐는가?(행 12:2) 누가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 넣고 그를 죽이고자 하였는가?(행 12:4) 누가 사도 요한을 팻보섬으로 보내어 고향에도 불구하고 소금광산에서 일하게 했는가?(계 1:9) 의심할 여지없이 “로마”인 것이다. 지금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전에 써져가 사용하던 십자가 문양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부 개신교단에서도 동일한 문양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아직도 그 도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에 주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그곳으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그 도성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모든 종교들을 통합하여 자신의 수중에 넣으려고 진행중인 것이다.(별첨 사진 참조) 대부분의 개신교들도 WCC(World Church Council)에 가입함으로써 사실상 그 도성 안에 영적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도성은 거듭난 복음주의 크리스찬을 제외한 개신교 뿐만 아니라 모슬렘, 불교, 힌두교 등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중에 있으며 그들은 UN 안에 있는 종교통합 기구를 통하여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별첨 사진에서 보듯이 교황은 코란에 입맞추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바 설명이 필요없는 사실인 것이다. 여러 개의 UN 기관들이 로마에 위치한 사실 또한 그 도성이 정치적, 종교적 통합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도 통합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문에 말씀하신대로 그녀는 짐승(적그리스도)위에 앉아서 그를 도와 모든 왕들을 그 앞에 무릎꿇게 하는 일을 할 것이나 결국에 가서는 그 짐승에 의하여 불로 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16 절) 깨어서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서 한 사람도 그 도성과 함께 심판받지 않도록 인도하는 일이야말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이다. 할렐루야!

### 8-8-2010 weekly message

Meditation: Psalms 122:1-9

Main scripture: Revelation 17:1-18

Subject: **The mystery of the Great Babylon**

There is a word in the world; Knowing the enemy, and knowing myself is the way have hundred victories in hundred wars. Same rule is applied to the spiritual warfare. Whosoever is born again of the Spirit through the faith in the Lord Jesus Christ should be equipped with the knowledge of the truth. In the knowledge includes not only of our Lord Jesus Christ, but also of the Anti-Christ. Apostle Paul encouraged to the Hebrew saints of this: **“<sup>13</sup>For every one that useth milk is unskilful in the word of righteousness: for he is a babe. <sup>14</sup>But strong meat belongeth to them that are of full age, even those who by reason of use have their senses exercised to discern both good and evil....Therefore leaving the principles of the doctrine of Christ, let us go on unto perfection; not laying again the foundation of repentance from dead works, and of faith toward God, <sup>2</sup>Of the doctrine of baptisms, and of laying on of hands, and of resurrection of the dead, and of eternal judgment. “(Heb. 5:13,14; 6:1,2)**

The message in the main passage today is a strong meat. Understanding this message to open the spiritual eyes is the way to know where we are. What if the children of God saved find out themselves in the Great Babylon? The main passage shall give us discerning wisdom. God spoke through the Apostle John foreseeing happening in the future: **“<sup>4</sup>And I heard another voice from heaven, saying, Come out of her, my people, that ye be not partakers of her sins, and that ye receive not of her plagues. <sup>5</sup>For her sins have reached unto heaven, and God hath remembered her iniquities. <sup>6</sup>Reward her even as she rewarded you, and double unto her double according to her works: in the cup which she hath filled fill to her double. <sup>7</sup>How much she hath glorified herself, and lived deliciously, so much torment and sorrow give her: for she saith in her heart, I sit a queen, and am no widow, and shall see no sorrow. <sup>8</sup>Therefore shall her plagues come in one day, death, and mourning, and famine; and she shall be utterly burned with fire: for strong is the Lord God who judgeth her.”(Rev. 18:4-8)**

There appears a woman in the main passage; she is out in the wilderness; she sits upon the beast; the beast has ten horns. Upon her head was a name written, **“MYSTERY, BABYLON THE GREAT, THE MOTHER OF HARLOTS AND ABOMINATIONS OF THE EARTH.”**

What a mysterious thing it is! But this is real one for us to believe. Then who is the woman? It is not a matter of personal interpretation, and not necessary to do that, for the scripture itself gives us explanation about her. In the chapter 17 verse 18, there is the clear definition of her: **“<sup>18</sup>And the woman which thou sawest is that great city, which reigneth over the kings of the earth.”**

Yes! This woman is a city that rules the kings in the earth. She has ruled the earth, and is ruling now, and shall rule in the future for a moment. Then where is this city in the earth?

In the verse 4, she has a golden cup in her hand (see attached picture) full of abominations and filthiness of her fornication. She was arrayed in purple and scarlet color (see attached picture). And this city was built on the seven mountains (v 7, see attached picture); rules the king of the earth; its symbol is the golden cup. Guess what? We can see easily where the city is located.

In the verse 5, she is the mother of harlots and abominations of the earth. How someone feels if he is now living in this city? It is not even necessary for us to know this city in Greek or Hebrew. What really matters is to know for him whether he belongs to this city or not, for this city is mystery; it is invisible unless we search the scriptures.

She is a whore, saith the Lord (vs1). In other word, she is a prostitute that sells her body for money. This city has been getting along with the world to receive honor from it. This city has been managing the king of the earth; and doing anything for her benefit. When the communists rule the world, she also became communist. In the days when Fascism and Nazism rule the earth, she blessed them, and sent them to battle fields. When they marched in the new land after victory, her priests and the nuns marched together with them. She received a great amount of money from them in the exchange of her support for them. In 1929 right before WW2, the Pope (Pius XI) put Mussolini (a Fascist Dictator) in power. In exchange, Mussolini and the Pope signed the Lateran Treaty to agree that Catholic Church is to be the main religion of Italy. And Mussolini also gave 750 Million Lira in cash and 1 Billion in State Bonds to Vatican (Roman Catholic Church). Vatican used this money to help Nazi Party to start (see attached picture).

The city built upon the seven hills (see attached picture) is drunk with the blood of the saints, and with the blood of the martyrs of Jesus. Do you really know the city that was built upon the seven hills; her color is purple and scarlet; rules the kings of the earth; her symbol is the golden cup; is the killer of the Christians? The city in the scripture is ROME without any doubt. Jesus said, **“Many people shall come in my name...”** Who pierced the side of Jesus with a spear? (John 19:34) Who crucified him? (Matt. 27:35) Who scourged Jesus? (Matt. 27:26) Who put Apostle Paul in the jail? ((Acts 25:12) Who beheaded James? (Acts 12:2) Who put Apostle Peter in the jail to kill? (Acts 12:4) Who sent Apostle John to the island called Patmos, and let such a old man work at the salt mine? (Rev. 1:9) It is ROME without question. What is the reason why the Roman Catholic Church has been using the same symbol of cross as Caesar used? Do you know some denominations of the Christian church also using the same symbol of cross as the Catholic Church? The Lord Jesus still calling the people to come out of her, for there may be the children of God still in her.

What kind of work is this city doing these days? She is going to unify all the religions under her hands. Almost all denominations of the Christian churches have been joining with WCC (World Church Council) to belong to her spiritually. This city is in the process of consolidate all the religions including Christians churches, Muslim, Hindi, Buddhism and so on except Evangelical Born again Christians. She is pursuing her project through the religious organization in UN as you see the Pope kissing on the Koran (see the attached picture). Through the various organizations of UN located in Rome, we understand easily that the city is going to unite the world politically, religiously, and also economically. As mentioned in the main passage, she will help the beast (Anti-Christ) sitting upon him to have all the kings of the earth to kneel down to the beast, but finally she shall be burned with fire by the beast (v 16). It is the real ministry for the mature Christians living at the end time to be on alert with prayer to waken up many people so that they may come out of her not to be judged with her. Hallelujah!